

News Letter



Contents

- 01.제주영어교육센터 뉴스레터 창간호를 발간하면서.....
- 02.제주영어교육센터에 바란다
- 03.상용화 연수 프로그램 안내
- 04.입이 트이는 자기주도학습
- 05.Let's Discover Gotjawal

- 06.새롭고 신나는 도전, JEJU EEC에서의 영어공부
- 07.“지역주민 문화센터 공간”으로써 우뚝설 도서관이 드디어 개관준비를 마친다.
- 08.상용화 연수의 중요성과 역할
- 09.제주영어교육센터 주요 시설 현황



(Contents)

01 제주영어교육센터 뉴스레터 창간호를 발간하면서..... 01

신재용 (제주영어교육센터 운영팀장)

02 제주영어교육센터에 바란다 02

김종훈(제주대학교 영어교육과 교수, 현)제주영어교육센터 자문위원

03 상용화 연수 프로그램 안내 04

성민정 (제주영어교육센터 운영팀 주무관)

04 입이 트이는 자기주도학습 06

고승준 (제주영어교육센터 운영팀 주무관)

05 Let's Discover Gotjawal 08

안숙전 (제주영어교육센터 운영팀 주무관)

06 새롭고 신나는 도전, JEJU EEC에서의 영어공부 10

김은중 (상용화 연수 교육생 및 Galler Nori 대표)

07 “지역주민 문화센터 공간”으로써 우뚝설 도서관이 드디어 개관준비를 마친다. 11

신재용 (제주영어교육센터 운영팀장)

08 상용화 연수의 중요성과 역할 12

고연진, 박대진 (제주도청 제주영어교육도시 지원사무소 주무관)

09 제주영어교육센터 주요 시설 현황 14

허주훈 (제주영어교육센터 운영팀 주무관)

[News 1]

제주영어교육센터 뉴스레터 창간호를 발간하면서.....

글.신재용 (제주영어교육센터 운영팀장)

안녕하십니까? 교육부 국립국제교육원 제주영어교육센터 운영팀장 신재용입니다.

먼저 뉴스레터 창간호가 많은 분들의 관심과 협조로 발간이 되어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센터 소식의 전도사로써 중요한 견인차 역할을 할 수 있을것으로 기대가 됩니다. 그리고 제주영어교육도시 정주민과 인근지역 주민, 그리고 제주관내 유관 기관 등 다수의 분들이 센터에 대하여 아직도 모르고 있기 때문에 금번 기회에 설립목적과 주요기능, 그동안의 추진사항을 소개하고자 합니다.

제주영어교육센터는 천문학적으로 지출되는 영어 사교육비 절감과 영어교육 격차 해소 등 공교육 정상화를 위해 제주영어교육도시 조성사업 일환으로 설립이 되어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주요기능은 제주영어교육도시 정주민 및 인근지역 주민을 대상으로 특화된 영어상용화 연수프로그램 운영과 한국인 정서에 최적화된 영어수업 진행을 위한 영어교육 정책연구개발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향후 중·장기적으로는 국내 모든 영어관련 교육 및 연수 등을 독자적으로 운영하여 국가 전문기관으로서 중추적인 역할과 국내영어교육의 메카로서 자리 매김 하고자 합니다. 작년 7월말 건물이 준공 개원되면서 찾아오는 방문객들의 대한 제반 서비스 만족도를 높이고자 부족한 각종 교육기자재 확충과 환경미화 등 시설개선에 중점적인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약 1,000여명 가까운 교육·연수생 등이 방문하여 편리한 교육시설 이용과 직원들의 친절한 서비스에 높은 만족감을 표시했습니다. 그러나 지속적인 각종 홍보에도 불구하고 기관에 대한 대외 인지도가 아직은 낮아 사업추진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에 대한 해결책으로 다양한 홍보 매체를 통한 정기적인 홍보와 방문객들에 대한 체계적인 사후관리를 통하여 제주 영어교육센터의 인지도 및 기관의 위상을 한층 더 높이고자 합니다. 금번에 뉴스레터 창간호 발간도 이 취지 일환으로 추진이 되었으며, 앞으로도 정기적인 뉴스레터 간행을 통하여 센터의 모든 각종 소식들을 고객의 눈높이에 맞추어, 보다 가까이 전달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앞으로 지속적인 관심과 적극적인 응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News 2]

제주영어교육센터에 바란다

글.김종훈(제주대학교 영어교육과 교수, 현)제주영어교육센터 자문위원

약 10여년의 오랜 준비 끝에 제주영어교육도시의 인프라 구축 지원과 국내외 영어교육 연구 및 교육의 메카가 되는 것을 비전으로 하는 제주영어교육센터가 대정읍 구억리에 문을 열게 된 것은 참으로 기쁜 일이다. 저비용 고효율의 첨단 영어교육 환경 조성과 쾌적한 기숙사 시설을 갖춘 전국 단위의 교육 연수기관이 제주 지역에 설립되어 우리나라 영어교사, 공무원, 대학생을 대상으로 영어 연수를 함으로써 국가 경쟁력을 제고할 수 있게 된 것은 크게 환영할 만한 일이다.

그동안 제주영어교육센터는 관련 정책 연구를 바탕으로 제주영어교육도시에 상주하는 주민들과 공공기관 및 상업 시설 종사자들을 위한 영어 상용화 프로그램과 대학생들을 위한 영어 의사소통능력 향상 프로그램을 운영함으로써 참여자들이 영어로 대화가 가능하도록 하는데 많은 노력을 해 왔다.

특히, 작년에는 원어민 영어보조교사 (TaLK) 연수 프로그램을 제주영어교육센터에서 직접 운영함으로써 원어민들의 수업 지도능력과 문화 간 이해력을 제고 시키는데 중요한 역할을 담당해 왔다.

연수에 직접 참여했던 정주민들과 공무원들이 해당 프로그램에 대해 어떤 평가를 내리고 있는지는 설문조사 결과에 잘 나타나 있다. 예컨대, 2012년에 연수를 받은 70여명의 정주민들과 15명의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영어 상용화 연수 만족도를 조사한 결과 응답자의 94.1%가 매우

만족한다는 응답을 함으로써 연수 프로그램이 효과가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이런 결과를 놓고 보면 제주영어교육 센터는 그 주요한 임무 중 하나인 영어교육도시 내 영어 상용화 지원 기능을 잘 수행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게다가 운영되는 프로그램들은 영어교육 관련 전문가 들로부터 공모를 통해 연구되고 평가받은 이후에 투입되고 있어 수요자 별 맞춤형 프로그램을 연구 개발하는 영어 교육 센터의 또 다른 역할에도 충실하고 있는 것으로 간주된다.

그러나 교육과 연수의 측면에서 제주영어교육센터는 전국의 영어교사들을 대상으로 특성화된 심화연수를 하루빨리 실시해야 할 시대적 요청에 직면해 있다. 당초 영어교육센터 설립을 계획할 때 고려한 중요한 역할 가운데 하나가 영어를 직접 가르치는 현직 영어교사들과 영어 교사를 희망하는 예비 영어교사들에게 까지 수업 실기 능력과 전문성 신장을 위한 연수 기회를 제공해야 한다는 것이었음을 유념할 필요가 있다. 현재 영어교사들을 대상으로 한 합숙형 심화 연수는 국내의 몇몇 대학에서 분산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바, 국립국제교육원은 이를 어떻게 통합하여 제주 영어교육센터에서 운영할 것인지에 대해 진지하게 고민해야 한다.

이를 위해 적어도 다음 두 가지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 첫째는 다소 정책적인 것으로 교육부와 각 시도교육청 등과 협의하여 영어교사 일반연수를 제외하고 심화연수만은 제주영어교육센터에서 담당할 수 있도록 조정할 필요가 있다. 제주영어교육센터는 비록 제주 지역에 소재하고

있으나 전국 영어교사들의 연수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설립된 것임을 당당히 이야기할 필요가 있다. 둘째는 국내 영어교사들로부터 매력을 끄는 차별화된 심화연수 프로그램의 개발과 운영이다. 제주영어교육센터에 가지 않고서는 결코 얻을 수 없는 교사의 내용지식과 실용지식의 신장을 위한 특성화된 연수 프로그램의 설계, 영어교육도시 내 유명 국제학교 글로벌 교육환경과 제주만이 갖는 특이한 자연환경과의 융합을 토대로 한 품질 높은 연수 프로그램 개발과 운영이 무엇보다 절실하다.

제주영어교육센터에 거는 기대는, 그러나, 여기서 멈출 수 없다. 중앙과 지방 공무원들의 국제 대화능력 신장을 위한 영어교육, 막대한 비용을 지불하며 외국으로 나가는 대학생들의 요구를 만족시키는 연수 등, 교육에 바탕을 둔 연구와 개발 기능의 확산을 통해 국내의 민간 및 공공의 영어교육 현장에서 컨설팅 역할을 해야 할 것이며, 국내외 영어 사용과 계획 및 정책에 대한 부단한 연구를 통해 그와 관련된 자료 보급에도 관심을 두어야 할 것이다.



[News 3]

상용화 연수 프로그램 안내

성민정 (제주영어교육센터 운영팀 주무관)

[JEJU EEC는 이런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 정주민, 공무원, 지역아동별 학생 맞춤 학습 제공
- 말하기 실력 향상에 초점을 둔 소규모 학습(정주민 / 지역아동 10~20명, 공무원 2~5명)
- 자기주도학습실 운영(1인 학습실에서 수업자료를 바탕으로 묻는 질문에 답하기 및 주요 표현 읽기 연습)
- 꾸준히 원어민 강사와의 실전 회화 연습 가능
- 3개월마다 인터뷰형식의 반 배정 평가 진행 (실력 향상도에 따라 다음 수준으로 이동, 실력 향상 체감도 높음
--> 강한 동기 부여)

[JEJU EEC의 수업은 이렇게 진행됩니다!]

- 정주민: 주 4회(월~목) 제주영어교육센터에서 수준별 수업 진행
(각 수업 당 최대 20명, 입문 1, 입문 2, 초급 1, 초급 2, 초급 3, 중급)

정주민 수업 시간표

시간	요일	입문			초급			중급
		1반	2반	1반	2반	3반		
오전 8:30~9:20	월~목	Starter English Conversation 1		Build Up Your English 1		English Conversation 3		
오전 9:30~10:20	월~목	Self-directed Learning 1	Starter English Conversation 2	English Coversation 1		Build Up Your English 2		
오전 10:30~11:20	월~목	Starter English 1	Self-directed Learning 2		Pocket English		English Conversation 5	
오전 11:30~12:20	월~목		Starter English 2		English Conversation 2		Let's Discuss	

- 공무원: [현재] 제주영어교육도시지원사무소(GEC), 제주영어교육도시 119센터 공무원 대상 현장수업 실시 네 반 수업 진행 중, 주 2~3회 진행
- 지역아동: 현재 두 반 수업 진행 중, 주 3회 진행

[JEJU EEC의 연수 기간은 다음과 같습니다!]

대상	분기	연수 기간
정주민	1분기	2015. 1. 12 ~ 2015. 4. 2
	2분기	2015. 4. 6 ~ 2015. 6. 25
	3분기	국제학교 방학으로 인한 휴강
	4분기	2015. 9. 14 ~ 2015. 11. 26(신청기간: 2015. 8. 10 ~ 2015. 9. 9)
공무원 및 지역아동	1분기	2015. 1. 5 ~ 2015. 3. 31
	2분기	2015. 4. 1 ~ 2015. 6. 30
	3분기	2015. 7. 1 ~ 2015. 9. 30
	4분기	2015. 10. 1 ~ 2015. 12. 31

* 공무원과 지역아동수업의 경우, 상시 접수 가능

[News 4]

입이 트이는 자기주도학습

고승준 (제주영어교육센터 운영팀 주무관)

수업은 열심히 듣는데 영어가 늘지 않아요.

제주영어교육센터를 찾는 모든 학습자들은 영어 말하기를 잘 하고 싶어 한다. 하지만 모든 학생들이 원하는 실력을 얻지는 못한다. 그런 대부분의 학습자들은 ‘절대적인 공부시간’이 부족하다. 영어 학습시간이 부족하다면, 영어실력 향상을 바랄 수는 결코 없다. 반면 열심히 출석을 하지만 그래도 영어 말하기 실력이 늘지 않는 학습자도 있다. 이는 영어 학습을 보다 소극적으로 하는 학생이다. 학원 강의와 인강 등을 열심히 들으면 공부한 시간이 많다고 느낀다. 하지만 영어 말하기 능력은 사회나 과학 같은 내용을 이해하는 이론적 학문이기보다는 악기 연주나 수영 같은 기술에 가깝다. 그러므로 악기를 직접 연주해 보거나 물속에서 직접 수영해 보지 않는다면 결코 실력이 늘지 않는 것처럼, 영어 말하기도 학생 자신이 직접 말을 하는 시간이 없으면 결코 실력이 늘지 않는다.



자기주도학습?

영어수업을 듣는 학습자들이 일반적으로 수업 시간에 발언 할 기회를 얼마나 얻을 수 있을까? 50분 내외의 학습 시간을 통상 15명 내외의 학습자 수로 나눈다면 강사의 발언 없이 말 할 기회를 학생들에게만 준다고 해도 3분 내외의 시간이상은 물리적으로 불 가능하다. 적극적인 1~2명의 학생들이 발언을 주도하는 수업이라면 나머지 학생들은 발언을 하지 않고 수업을 마치기도 한다.

사실 영어학습에서 가장 바람직한 학습방법은 1:1로 강사와 정해진 시간 동안에 말하기를 연습할 수 있다면 더할 나위 없겠지만, 비용이나 효율 면에서 현실적이지 않다. 이 때 자기주도 학습법은 좋은 학습대안이 될 수 있다. 실제로 현재 시범 운영되고 있는 자기주도 학습 프로그램에서는 학생들이 학습시간 대부분을 큰 소리로 영어로 말하기 연습을 하는 것을 볼 수 있다. 마치 악기를 배울 때처럼 수업시간에 배우거나 배울 사항들을 개인 연습실에서 연습을 하는 광경을 연상하면 된다. 실제로 제주영어교육센터의 시범운영에 참가한 학습자들은 수업 시간 내내 큰 소리로 문장을 만들어 보고, 들리는 질문에 대답을 하는 연습을 한다.

제주영어교육센터에서는 2014년 7월 건물 완공된 이후, 서울 교육대학교 산학 협력단에 의뢰하여 자기주도 학습실의 효과적 활용을 위한 학습 프로그램 개발을 정책연구과제로 연구수행을 완료하였고, 이후 센터내의 자기주도 학습실을 활용하여 2015년 1분기부터 자기주도학습 시범운영을 시행하고 있다. 시범운영의 대상은 우선 입문 1반, 입문 2반의 입문수준 대상의 학습자(26명)를 대상으로 운영을 하고 있으며, 2015년 2분기 말까지 시범운영을 계속 할 예정이다. 시범운영을 하면서 운영 노하우를 보다 축적하고 프로그램의 추가 및 개선과정을 통해 프로그램을 향후 확대 할 예정이다.



자기주도학습 시범운영과정에 참가하는 한 학습자는 수업시간외에 추가로 시간을 내어 참가하는 데 어려움이 있었지만 학습 효과에 대한 확신이 생겼고, 앞으로 지속적으로 프로그램이 이루어졌으면 좋겠다는 반응을 보였다. 실제로 프로그램에 참가한 학습자들의 만족도 조사에서 자기주도 학습에 99.3점의 만족도 점수를 부여했고, 향후 참가 의사에는 100점을 주는 등 설문결과 높은 만족도점수를 보여줬다



'자기주도'영어 학습을 향하여

현재의 시범운영에서는 수업과 연계한 자기주도 학습실의 운영으로 학습진도를 수업에 맞추어 운영을 하고 있지만, '자기주도'를 충족 하려면 개개인별로 자기주도학습 컨설팅을 통하여 학습자별 맞춤식 학습목표 및 학습계획을 세우도록 할 수 있어야 한다. 또한, 현재 수업 시간과 연계한 학습실 개방 시간도 단계적으로 확대하여 학습자들의 요구에 맞춘 자율적인 학습 환경을 제공해야 할 과제가 남아 있다. 또, 인터넷 SNS, 학습 커뮤니티의 운영을 통해 학습 노하우를 공유하고 이를 통해 개인들의 동기부여가 될 수 있는 창구를 제공하거나, 상호간에 격려를 하는 등 학습의욕을 증진시킬 수 있는 방안도 마련 할 필요가 있다. 현재의 시범운영은 그 시작이라는 점에서는 성공적인 사례를 보여주고 있지만 앞으로 시범운영을 넘어서서 제주영어교육도시의 상용화를 견인할 핵심 프로그램으로서 자리매김을 할 것으로 기대가 된다.

[News 5]

Let's Discover Gotjawal

안숙전 (제주영어교육센터 운영팀 주무관)

제주영어 교육센터는 상용화 수업 수강생 정주민 47명과 지역아동 20명과 함께 3월 12일, 14일 이틀에 걸쳐 1분기 곶자왈 환상숲으로 현장학습을 다녀왔다. 학습 내용은 먼저 참가자들이 숲탐방을 통해 곶자왈 지역의 특징을 이해한 후 이를 바탕으로 숲 탐방 내용을 영어로 표현할 수 있도록 구성하였다. 숲 탐방 및 영어 학습 내용은 학습자의 연령과 학습특성을 반영하였다.

정주민은 영어 수준에 따라 4개조로 나누어 숲해설 및 영어 학습에 참여했다. 숲 해설 후 참가자들은 조별로 곶자왈에 서식하는 나무종류알기, 계절별 특징 등의 내용을 영어로 표현해보고 곶자왈과 관련있는 단어를 익히는 시간을 가졌다. 더불어 곶자왈 그림으로 나타내기, 현장학습 체험에 대해 가족에게 편지쓰기와 같은 활동을 통해 체험학습을 마무리 지었다. 특히 그림, 편지쓰기 활동은 참가자가 곶자왈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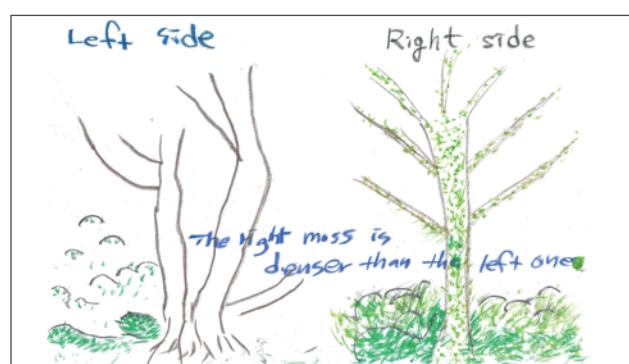
단체 사진



숲 탐방 모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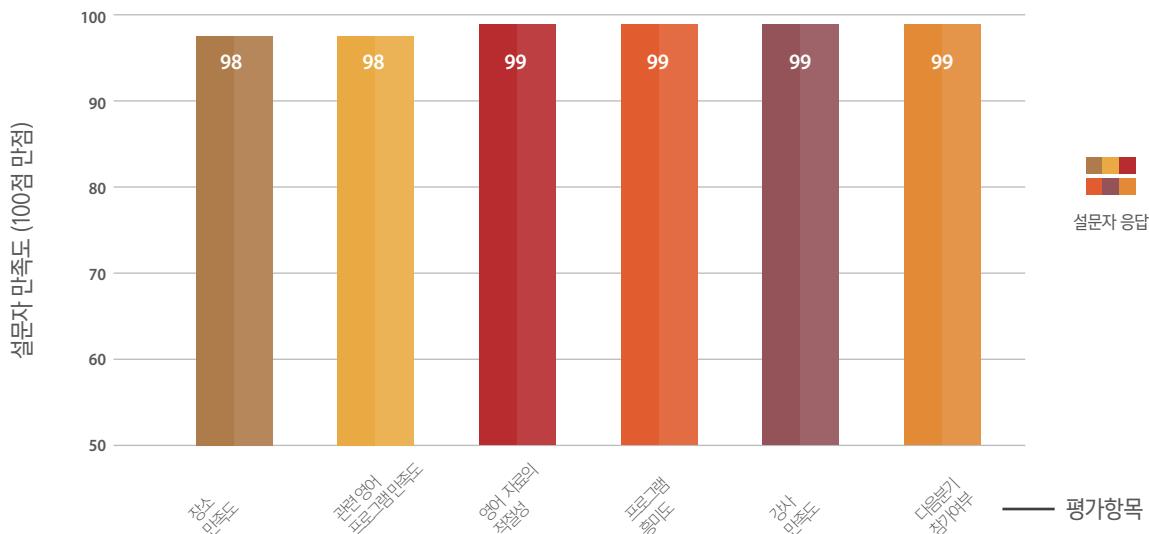
숲 탐방 후 영어 수업



학습 결과물-영어로 숲 표현하기

특이한 식생에 대해 다시 한번 생각해볼 기회를 마련했을 뿐 아니라 해당 영어 수업 내용을 재점검할 수 있었다.

참가 수강생들은 곳자왈 숲 현장학습 만족도 설문 조사에 평균 99점으로 매우 높은 만족도를 보였다. 대다수가 다음분기에도 꼭 참가하고 싶다고 밝혔다. 이를 반영하여 제주의 아름다운 환경을 활용한 2분기 현장학습을 구성할 계획이다.



지역아동의 현장학습 내용은 아이들의 특성을 고려하여 활동의 비중을 두고 프로그램을 기획했다. 대정골, 모슬포 지역아동센터 아동이 처음만나는 자리인 만큼 활동 시작 전 나무 목걸이 만들기, 개인소개하기와 같이 서로 알아가는 시간을 충분히 가진 후 조별로 곳자왈 탐방을 실시하였다. 아이들은 성인과 달리 숲에 대해 탐구지를 스스로 해결해나가며 곳자왈 숲의 특징을 익혔다. 마무리 활동으로 아이들은 개인 화분 만들기를 하면서 자연 보호에 책임감을 느껴볼 기회를 마련하였다. 숲 탐방 후 담당 강사와 함께 숲과 관련된 영어단어 및 표현을 배웠다. 참가학생은 “숲을 뛰어다녀서 재미있었다. 곳자왈에 신기한 것이 많아서 놀랐다”고 소감을 밝혔다.



조별 숲 탐방 모습



단체사진

[News 6]

새롭고 신나는 도전, JEJU EEC에서의 영어공부

김은중 (상용화 연수 교육생 및 Galler Nori 대표)

2011년 11월. 서울 생활을 마감하고 제주도 서쪽에 이주한지도 벌써 4년이란 시간이 흘렀다. 마치 자동차 경주에서 가속페달의 발을 내려놓은 듯 저지예술인마을 노리에서의 새로운 삶은 전혀 예기치 않는 만남들과의 연속이다. 그중 하나가 이른 아침부터 나를 움직이게 하는 영어수업이다.



제주에 올 때부터 내심 기대를 했었다

‘혹시 국제영어교육도시에 내가 참여해 볼만한 교육프로그램이 없을까’하고 말이다. 2012년 3월 어느 날, 노리를 방문한 국제학교 학부형의 말 한마디로 바로 제주 영어 교육센터에 전화를 하고, 쓴살같이 달려가 인터뷰를 하고 그 다음날로 나에겐 새로운 영어공부 도전이 시작되었다.

나의 첫 선생님이셨던 니콜 선생님과의 팝송과 기본 동사의 기본 문장 배우는 시간은 나의 정지된 삶에 큰 활력소가 되기 시작했다. 3년 전에 처음 시작 당시, 60분이었던 수업 시간은 모두 100분으로 늘어났고 젊고 야심찬 선생님들이 점점 늘어나고 강의시간, 규모 등 모든 것이 교육센터로서의 모습을 훌륭히 갖춰가고 있는 듯하다.

아직도 많이 부족하지만 나의 영어 실력 또한 일취월장 하고 있다. 내가 운영하는 갤러리 노리에 방문하는 외국인들과 주저함없이 영어로 대화를 하게 되었으니 나 스스로가 놀랄 정도다. 수년 전 여행길에서, “엄마, 창피하니까 무식한 영어로 말하지 마세요.”라고 나를 향해 쏘아붙였던 아들에게 보란 듯이, 내 입에서 거침없이 영어가 튀어 나오게 된 것은 영어교육센터의 열정에 찬 선생님들의 강의 덕분이다. 항상 즐겁게 배울 수 있는 기회를 주는 영어교육센터에 감사할 따름이다.

[News 7]

“지역주민 문화센터 공간”으로써 우뚝 설 도서관이 드디어 개관준비를 마친다.

신재용 (제주영어교육센터 운영팀장)

제주영어교육센터는 작년 7월말 개원 이후 영어상용화의 구심점으로서 그 면모를 갖추기 위해 힘을 써 왔다. 그 노력 중 하나로서 본 센터는 ‘14년 12월부터 도서관 개관 준비를 해왔다. 2,000여권의 각종 도서와 기타 CD 자료, 자체 연구개발된 다양한 영어교재도 마련하였다. 센터는 도서관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관리 프로그램을 구축하고 구비 도서에 바코드를 부여하는 등 기본시설 확충에 준비를 마쳤다. 그리고 도서관 내 정보 검색대를 설치하여 도서관 이용객이 쉽게 책을 찾을 수 있도록 하였으며, 이와 같은 기본시설 준비 외에도 이용객들이 편안하게 도서관을 이용할 수 있도록 안내 표시판과 바닥 공사와 같은 환경 미화에도 정성을 쏟았다. 현재 제주영어교육센터는 도서관 운영을 전담할 전문 사서직원 채용도 추진을 하고 있다.

도서관은 ‘15년 6월 중 개관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오전 10시부터 오후 4시까지 제한적으로 운영할 예정이다. 주요기능은 도서열람 및 대출, 자율 학습 공간을 준비하였다. 더불어 주민들이 아이들과 함께 도서관을 방문할 수 있도록 어린이 이용 공간도 준비를 하였다. 현재는 만족스러운 도서 등을 보유하고 있지 않지만 향후 예산을 확보하여 점진적으로 부족한 부분을 보완할 계획이다. 도서관 이용객들의 불편을 줄이기 위하여 센터는 사전에 정주민 대상으로 도서관 이용 수요를 실시하였으며, 각종 불편사항 등은 향후 반영하여 개선하고자 한다. 이를 통해 제주 영어교육센터 내 도서관이 지역 주민의 독서 함양 제고와 문화생활 공간으로서 기능을 다할 것으로 기대해 본다.



도서정보 검색실



도서관 서가



시청각 자료실

[News 8]

상용화 연수의 중요성과 역할

고연진, 박대진 (제주도청 제주영어교육도시 지원사무소 주무관)



영어교육도시지원사무소는 2011년 11월에 개소하여 제주영어교육도시의 성공적인 안착을 위해 노력을 해 왔다. 제주영어교육센터도 정주민 상용화 연수 이외에도 2012년부터 3년째 교육도시 내 지원사무소, 119센터 등 영어 상용화 환경의 조성을 위하여 여러 기관 종사자들을 대상으로 영어연수를 지속적으로 제공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영어교육도시 당초 취지가 교육과 생활을 모두 할 수 있는 정주형 도시를 만드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고, 교육뿐만 아니라, 주거, 상업시설, 공공청사, 금융기관, 문화 체육시설 등 모든 일상생활에서 영어를 자유스럽게 이용되는 영어권 국가의 도시에서 생활하는 것과 똑같은 환경을 조성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하지만 아직 영어교육도시에서 이런 모습을 찾아보기는 쉽지 않다. 아직은 기반시설 조성 및 국제학교의 추가 유치 등 영어 상용화 환경을 갖춰 나가기까지 아직 앞으로 해야 할 일들이 너무나도 많다고 생각한다.

영어교육센터에서 제공하는 상용화 연수는 이런 환경에서 여려모로 큰 도움이 된다. 실질적으로 영어교육도시에 근무하면서도 영어를 하루에 그렇게 몇 마디라도 하는 게 영어교육센터의 상용화 수업 외에는 많이 없는 것이 실정이다. 방문 외국인들의

민원을 처리하는 업무를 지원 사무소에서 하고, 기타 외국어 지원 업무와 영어 상용화 환경 조성 업무를 하긴 하지만, 막상 수업 아니면 근무 중에 영어를 할 기회가 많지 않은 것도 사실이다. 하루에 몇 마디라도 하는 것이 시간이 쌓이다 보면 그것이 실력이 되고, 필요한 시점에는 활용할 수 있어 매우 도움이 많이 된다. 또, 평소에는 외국인 민원인들과 민원처리상 하는 영어로 민원을 처리하긴 하지만 이 경우에도 매우 제한적인 영어만 사용하게 는 것도 사실이다. 그 이외에 영어로 업무처리도 가능하도록 역량을 키울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영어에 대한 노출이 필요하며, 영어를 상용하는 환경을 만들 필요가 있는데, 아직까지는 영어 사용화가 덜 되어있어서 수업이 아니면 영어를 할 기회가 많지 않다.

또 영어수업은 수업 밖에서도 매우 긍정적인 효과를 만들어낸다. 정주민들의 경우에도 영어수업에서 만나서 서로를 알게 된 경우에는 영어를 수업시간에 쓰게 되고, 또 수업시간 중에 영어로 말을 트고 관계를 가지게 된다. 이런 관계를 가지게 되면 그 주민들은 수업 밖에서 영어를 쓰는 것에 대해 덜 어색한 분위기를 가지게 된다. 사실상 그런 관계가 되기 이전에는 영어로 일상생활을 하는 것이 한국인들 정서상 깔끄러운 것이 있다. 교육도시 내에서 제도적으로 영어를 쓰도록 장려하기 이전에 영어를 사용하는 게 어색하지 않은 분위기를 만드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영어 상용화 연수는 이러한 면에서 영어 상용화에 큰 기여를 하고 있다. 영어 교육도시 특성상 상용화 분위기를 이끌어내기 위해서는 외국인 종사자들 이외에도 한국인 정주민들 사이에서도 영어로 소통하더라도 어색하지 않은 분위기를 만드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영어교육도시의 조성과 발전은 많은 제주도민들의 기대와 관심이 모이고 있으며, 현재 긍정적인 평가를 여려모로 받고 있다. 앞으로 영어 교육도시의 조성 취지가 무색하지 않도록 영어로 소통이 되는 영어교육도시를 기대 해 보며 그때까지 영어교육센터 상용화 연수 사업의 큰 역할을 기대한다.



[News 9]

제주영어교육센터 주요 시설 현황

<시설 현황>

허주훈 (제주영어교육센터 운영팀 주무관)

제주영어교육센터 수용 규모

주요 실별 인원				
	시설	개수	인	인원(명)
행정 연구 (277명)	센터장실	1	1	1
	사무실	3	9.3	28
	연구실	7	2	14
	대강당	1	214	214
	소회의실	2	10	20
상용화 지원시설 (389명)	다목적 세미나실 등	2	37.5	75
	강의실(중형)	6	30.6	184
	강의실(소형)	5	20	100
	자기주도학습실	3	10	30
	최대 동시 교육인원			389
식당(100명)	카페테리아	1(2교대)	100	200
직원 숙소 (침대 51명)	1인	13	1	13
	3인	10	3	30
	4인(게스트룸)	2	4	8
	수용 가능 인원			51



대강당



일반 강의실



CLT 강의실



컨퍼런스룸



도서관



카페테리아(식당)



본관 휴게실



본관 휴게실



일반룸



게스트룸



세탁실



기숙사 휴게실

<시설물 사용료 기준>

구분	실 명칭	실(室) 개수	수용 능력	사용료		시간당 금액(원)
				기준	금액(원)	
교육 연수 시설	대강당	1	214석	4시간 이상	220,000	27,500
	다목적 세미나실	1	56석	4시간 이상	70,000	8,750
	컨퍼런스룸	1	17석	4시간 이상	70,000	8,750
	연수지원 사무실(1층)	1	10인	1일	70,000	8,750
	연수지원 사무실(3층)	1	9석	1일	30,000	3,750
	회의실	2	10석	1일	25,000	3,120
	합동강의실	1	40석	1일	40,000	5,000
	중형강의실	5	32석	1일	60,000	7,500
	일반강의실	1	24석	1일	40,000	5,000
	소형강의실	5	20석	1일	25,000	3,120
	자기주도학습실	3	10석	1일	50,000	6,250
기술사 시설	1인실	13	1인	1일	20,000	-
	3인실	10	3인	1일	30,000	-
	4인실	2	4인	1일	35,000	-

사용료 징수 규정

- 1일 사용기준 : 8시간(09:00~18:00)
- 4시간 미만 사용 : 일일사용료의 1/2 부과
- 동절기(12월~2월) 및 하절기(6월~8월) 10% 가산
- 토요일, 공휴일은 20% 가산
- 연습을 위한 시설이용은 사용료의 50% 징수

[News Letter 창간호]

Jeju English Education Cente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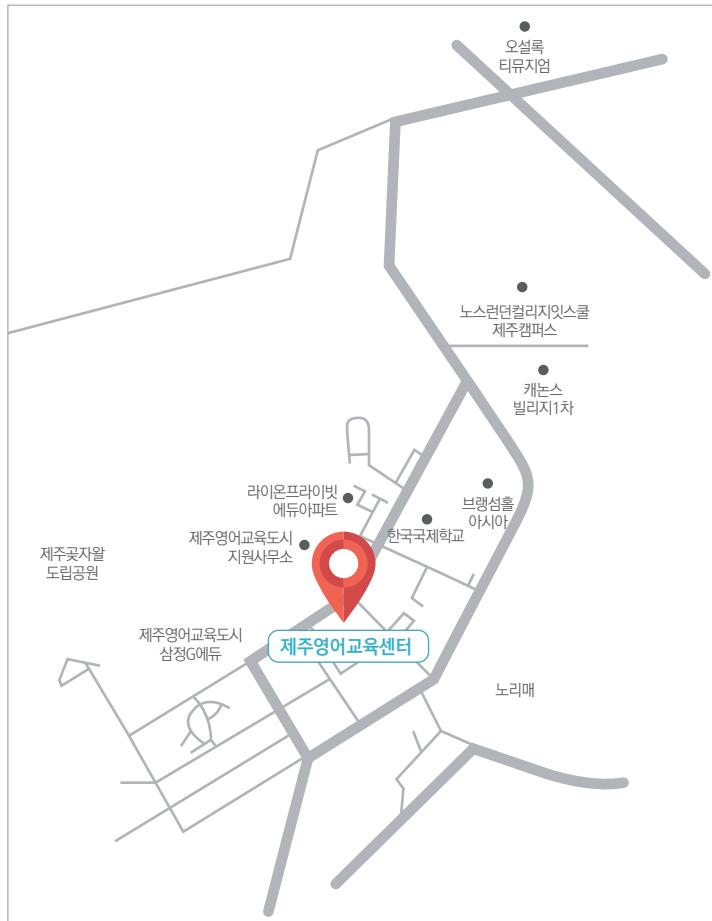
발행일 2015년 5월 15일

발행처 교육부 국립국제교육원 제주영어교육센터

기획 · 편집 제주영어교육센터 운영팀

홈페이지 jejueec.moe.go.kr

주소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대정읍 글로벌에듀로304번길 35 제주영어교육센터



제주영어교육센터 찾아오는길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대정읍 글로벌에듀로304번길 35 제주영어교육도시 내 I-7 블록
영어교육센터

· 전화번호: 064-793-5100

· 택시 (제주국제공항→영어교육도시) – 총거리: 33km, 소요시간: 약 50분, 비용: 25,000원 내외

· 대중교통 (제주국제공항→동광육거리→영어교육도시) – 총거리: 34.7km, 소요시간: 1시간 30분, 비용: 6,000원 내외

제주국제공항 → 동광육거리

거리: 29km, 소요시간: 1시간 16분, 비용: 5,000원 내외

- 37번 (제주대–수산) 버스 탑승

제주국제공항(탑승)→연동 입구→신제주 로터리→수협 제주도지회→삼무공원→그레이스호텔→한리병원(하차 및 환승)

- 평화로 (제주–화순–대정) 버스 환승

노형로터리→정존마을→월산마을→해안동 입구→무수천→광령1리→제주관광대학→고성2리→유수암리→유수암 단지→운전면하시험장→동광육거리(하차 및 환승)

동광육거리→영어교육도시

거리: 5.7km, 소요시간: 11분, 비용: 1,000원 내외

동광육거리(탑승)→영어교육도시 지원사무소(하차)

자가용 이용안내

총거리: 35km, 소요시간: 50분

제주국제공항→한림, 신제주(중문) 방향 우회전→신제주입구 로터리 우회전→노형오거리 직진(1135 지방도)→동광IC진출→동광육거리 2시 방향 우회전→오설록 박물관 사거리→영어교육도시 방면 직진→NLCS→사거리 우회전→KIS 맞은편 영어교육도시 지원사무소